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주간 제2613호]

주체 109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음력 8월 10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백두산녀장군의 고귀한 한생

9월의 이 강산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에 대한 우리 겨레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세월은 흘렀으나 오늘도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계시며 위대한 혁명가,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영생하시는 김정숙녀사.

력사는 이름난 녀류명사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지만 김정숙녀사와 같이 서른두해라는 길지 않은 생애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처럼 고귀한 업적을 남긴 절충한 여성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김정숙녀사의 생애는 나라의 해방과 민족의 통성변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한생이었다.

나라없는 민족의 피눈물나는 설움과 생활고초를 겪으시는 과정에 반일애국의 뜻을 지니신 녀사께서는 10대의 나이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시었다.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손에 총을 놓지 않았다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고 조선인민혁명군대에 들어서신 녀사께서는 처참조류 격구방위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싸움터들에서 높은 희생성과 대담성을 발휘하시어 사령부의 전략전술적의도를 관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었다.

군사활동에서뿐아니라 정치공작활동에서도 능숙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장백현 도천리와 신파, 연사지구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와 국내길

에까지 진출하시어 적극적인 지하정치공작활동을 벌리시었다. 그때마다 높은 정치적식견과 비상한 조직적수완, 원숙한 공작활동으로 사령부의 의도를 훌륭히 관철하신 녀사의 혁혁한 무훈은 《녀성호걸》, 《백두산항일녀장수》, 《백두산녀걸》이라는 존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사의 갈피마다에는 녀사께서 왜놈들의 《토벌》로부터 한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속에 서슴없이 뛰어드시고 열병에 걸린 부덕대기소녀를 완쾌

시키기 위해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친혈육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일화들과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펄펄 끓는 죽가마를 이고 달리시어 유격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신 사실 등 인민들과 전우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김정숙녀사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신 열렬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이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보좌하시었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규무력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원호사업이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되었을 때 녀사께서 조국보위기금회사 사업에 앞장서신것만 보아도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느날 녀사께서는 대의 조국

보위기금회사명세를 만드시었는데 외국의 한 대사가 기증한 2개의 은초대, 외국의 한 부인이 선물한 합금장식의 화장품통 그리고 지방에 파견되어 일하는 한 일군이 울린 보약들이 명세에 들어있었고 가정에서 식사량을 조절하여 기금헌납에 쓴다는것까지 적혀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수령님께서서는 잘했다고 하시며 조국보위기금회사는 수상내 집이 응당 앞장서야 한다고, 지체 말고 조국보위후원회에 헌납하자고 하시었다.

그후 대의 진지상에는 잡곡이 전보다 더 많이 섞인 조밥과 가지수가 적은 식찬이 올랐다. 김정숙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쌓으신 가장 특출한 업적은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올리신 것이다.

녀사께서는 항일대전과 새 조국건설의 격동적인 나날 뜨거운 지성과 로고를 다하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민족의 향도성으로 받들어올리시었다.

우리 겨레가 대를 이어 위인복을 누리며 민족자주업을 즐기게 이어가갈수 있도록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다 바친신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아랍조선협조리사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글 게재

아랍조선협조리사회가 19일 인터넷홈페이지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영상이전문헌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올해 9월 22일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길이 칭송하며마지 않는 김정숙녀사의 서거 71돐이 되는 날이다.

력사는 나라와 민족의 진보와 번영에 기여한 공적으로 이름떨친 녀류명사들이 적지 않지만 김정숙녀사처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친 절충한 녀성정치활동가는 없었다.

망국노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성장하신 녀사께서는 일찌기 나라찾는 성전에 나서시었다.

1935년 김일성주석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어 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손에 무장을 들고 혈전만리를 헤치셨으며 그 나날 항일의 녀장군으로,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명성을 떨치시었다.

김수미

녀사께서는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무비의 용감성과 뛰어난 지략, 신묘한 사격술을 보여주시었다.

녀사께서 항일전장에 남기신 수많은 일화들은 오늘날도 조선인민의 기억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김정숙녀사의 공적중에서 특출한것은 김일성주석을 결렬히 옹호보위하신것이다.

녀사께서는 해방후에도 새 조국건설을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김일성주석을 충직하게 보좌해드러시었다.

일제에 의해 파괴된 공장과 농촌, 어촌 등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주석의 헌지지도를 보좌하시면서 인민들을 새 생활창조, 새 사회건설에로 불러들이시었다.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다함없는 사랑과 흠모를 받으시던 녀사께서는 1949년 9월 22일 너무도 젊은 나이에 생애를 마치시었다.

현대조선의 력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신 녀사의 고귀한 생애는 무궁번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녀사》

서해의 날바다우에 솟아오른 자력갱생의 창조물

안석간석지 준공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자랑한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자력갱생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안석간석지가 훌륭히 건설되어 준공되었다.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뿔뿔한 자연의 광란을 길들여 3년 남짓한 기간에 간석지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웠다.

안석간석지건설은 온천군 안석리로부터 석치리까지 수십리에 달하는 날바다를 가로질러 120여만㎡의 성토와 30여만㎡의 장석공사 등을 진행하여 방조제를 쌓아야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었다.

사회주의조국의 대지를 넓히는 숭고한 애국사업에 펼쳐나선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불가능을 모르는

자력갱생정신과 창조본래로 간석지건설에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2017년 5월부터 1구역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료전기재들과 중기재들을 비롯한 설비들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제방쌓기에서 매일 80~100m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공사를 드세게 내밀었다.

오늘의 고생이 클수록 메일의 행복이 앞당겨진다는 혁명적관조의정신을 지니고 사한 파도와 폭우속에서도 밤낮이 따로없는 치열한 건설전투를 벌린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승리의 시간표는 날마다 앞당겨졌다.

간석지간에 굴착기들을 만가동하여 제바닥흙으로 제방을 쌓고 반터중을 형성함으로써 수천m에 달하는 1호제방공사의 질적수준을 보장하

였으며 가물막이를 립체적으로 진척시켜 수문공사도 동시에 계속하였다.

2호제방공사에서도 성토공사속도를 높이고 외제장석공사를 추진하여 바다물에 의한 성토류실과 폐임 등을 방지하였으며 제방성토와 경사면에 대한 피복공사를 철저히 공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였다.

2구역공사에서도 기업소로 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과학기술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전기식발파의 도입으로 많은 화공품을 절약하면서도 발파효율을 제고하여 막대한 산을 높이였으며 기능공력량을 종전보다 일평균 3배이상으로 끌어올리었다.

과학연구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기회에 바다패용현상을 막기 위한 공법을 비롯한 합

본사기자



재중동포단체와 언론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광범히 소개선전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동포언론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공화국을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비약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가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기관지 《영원한 추억》, 《깊은 우정 영원히 기억하리》 등의 제목으로 된 기사(중문)들을 기관지에 실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물화가 죽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영고 자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신 소식과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을 하신 소식,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를 찾으시어 큰

모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신 소식들도 기관지에 게재하였다.

중국 동북3성지역 재중동포언론들인 《연변일보》, 《길림신문》은 경에 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과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의 긴급소집》, 《김정은위원장 자위적혁적력으로 조선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 《김정은조선최고지도자 평양종합병원건설현장 시찰》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동포언론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적승리를 창조해나가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의 불굴의 투쟁모습도 소개선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기관지 《백두-하나》에 산

간문화의 리상도사로 변모된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평명남새온실농장마을 등의 사진을 실고 경에 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밑에 공화국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고있다. 내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연변일보》는 《조선, 사회주의경제건설 강력추진》이라는 제목밑에 평명거리와 미페과학자거리, 원산구두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소개하면서 공화국인민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이밖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기관지에 《우리는 공화국의 행복찬 해외동포》라는 제목으로 재중동포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대한 글을 실었다.

본사기자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찬연히 빛나는 촛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체사상탑에 수많은 회귀한 기념돌들 기증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거연히 솟은 주체사상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만대이 길이 전하는 자주시대의 상징으로, 진리와 정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촛불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개척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그 진리성으로 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거대한 견인력을 발휘하면서 만민들의 심장을 여세게 틀어잡고있다.

주체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끝까지 따르려는 진보적인류들의 순결한 마음은 그들이 주체사상탑에 기증한 기념돌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사상탑이 건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거의 40년동안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서 주체사상탑에 회귀한 기념돌들을 보내어왔다.

현재 주체사상탑 기단건설은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지성을 다해 보내어오는 300여개의 기념돌들로 장식되어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보내어오는 기념돌마다에는 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여있다.

돌에 금이 가면 심장에 금이 간다고 하면서 안테스산 줄기에 물려있는 회귀한 대리석을 소중히 운반하여 주체사상탑에 기증한 배우의 주체사상신봉자들, 반지나 귀걸이와 같은 고급장식품을 만든다든가 쓰이는 진귀한 옥돌판석 30여장을 구해다 정성껏 다듬어 보내어오는 파키스탄의 주체사상신봉자, 무

게이트 빛같이 은근하여 과거에 왕국을 짓는데만 지나는 천연대리석을 보내온 보르투갈의 주체사상신봉자들, 제일 좋은 대리석에 김일성화를 정성껏 새겨보낸 인도네시아의 기자들 비롯하여 주체사상을 따르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들의 모습이 주체사상탑에 그대로 비껴있다.

주체사상탑에 기증된 기념돌들은 그 산지와 재질, 보내는 사람들의 국적과 언어,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주체사상의 영원불멸성을 칭송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려는 뜨거운 마음들이 깃든 귀중한 재부들이다.

주체사상탑을 찾는 외국의 빛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주체사상탑은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칭송하며 따르는 세계 진보

적인류들의 뜨거운 마음들에 떠받들려 거연히 솟아오르는 인류공동의 대기념비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한 외국인은 감성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주체사상탑이 상징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내가 이 주체사상탑에 기증한 돌이 주체사상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주체사상들이며 인류의 자주위업의 빛나는 완성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세계 많은 나라에서 주체사상탑에 보내어오고있는 기념돌들은 자주시대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을 끝없이 칭송하고 따르는 인류의 마음을 길어주며 우리 행성의 귀중한 재부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사랑속의 사회주의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사랑이란 말처럼 흔히 쓰는 표현은 없을 것이다.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 부모친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교향과 직업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랑은 마음속에서 자란다. 그래서 돈으로 비단은 살수 있어도 사랑은 살수 없다 한 것이다.

이 하 많은 사랑가운데서도 제일 숭고하고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끝을 알수 없는것이 바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와 역사를 창조하며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담당자, 주체로 되고있는 근로인민대중의 힘은 참으로 크다. 바로 그 인민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구현하고있는가에 따라 해당 나라의 정치의 성격과 위력이 규정되고 공교성도 담보되게 되는 것이다.

공화국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으로 일떠선 나라이다.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항일전의 나날 인민이 주인되고 잘사는 새 사회를 세우실것을 구상하시였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지휘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던 시기 유격구에 진정한 인민정권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그에 대하여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혁명정권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로동의 권리를 주고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며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만민평등의 리념이 실현된 사회,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하며 받들어주는 고상한 료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유격구에는 개화장을 짓고 거들먹거리려는 부자도 없었고 빛과 세속에 짓눌려 세상을 한탄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유격근거지들에는 그 어떤 수난이나 고통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나래치는 희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사회악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주적인 새 삶을 개척해나가는 인민들의 량만이었다고 쓰시였다.

항일전선의 나날에 창조된 인민정권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구현하여 해방후에 창건된것이 공화국정권이다.

해방후 복잡한 정국에서 조선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민주주의길로 나아갈데 대하여 환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된 새 나라이라는 의미에서 국호에도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넣도록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자랑스러운 국호는 이렇게 태어났다.

인민은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 되고 새 정권의 주인으로 되었다.

공화국이 창건되던 나날에 천지를 진감한 《인민공화국선로의 노래》는 국가와 사회의 담당자 주인이 된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희열의 토로였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정소했던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체력의 무력침공도 인민사랑의 힘으로 물리쳤다.

그처럼 가렬쳐졌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병사들을 위해 화선휴양을 조직하고 인민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치료받은 부상자로 제를 실시한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힘이 과연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모든것이 폐허가 된 전후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공화국은 인민의 창창한 레일을 그려보며 복구건설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 천리마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다. 그 나날 환풍의 자과과한들의 철장재가 귀하였지만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마련을 위해 평양속도를 창조하면서 주택건설의 불바람을 일으킨 공화국이다.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정부기관청사보다 인민들을 위한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장대제단덕우에 일부 사람들이 정청사를 앉힐것을 제의하였으나 수십년간 공지로 남겨두었던 그곳에 전민이 공부하는 대학습당을 세우도록 하시 수령님이시였다.

모든 사색과 활동의 첫자리에 언제나 인민을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아이들이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서고 훌륭한 평양학생소년궁전도 생겨났으니 이 땅에 울려 퍼진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는 절세위인을 온 나라 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로 모시고 모두가 친형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감의 분출이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어려운 때에 그 진가를 더욱 알수 있는 법이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인민사랑의 꽃이 변함없이 활짝 피어나는 곳이 공화국이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공화국에서는 인민적시책들이 중단없이 계속 실시되었고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공우유차는 유치원과 학교들을 찾아 변함없이 달렸으며 전기사정이 긴장한 속에서도 평양산원의 불빛만은 꺼질줄 몰랐다.

창공에 공화국기가 처음 날린 때로부터 어언 72년, 오늘 공화국은 자기 발전의 최정성기를 누

리고있다. 국력은 반만년력사이래 최대로 강화되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은 온 세계에 떨쳐지고있다. 《조국찬가》의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인민의 꿈은 나날이 현실로 되어가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인민사랑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자신에게는 장군님께서 말하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자신께서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 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하시였다.

이것이께서는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이 불행에 당하였을 때에는 그리도 가슴 아파하시며 그 불행을 가서주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을 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지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매일 매 시각 폐부르느끼고 심장으로 걸감하고있다.

레년에 없는 큰물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은과군 대청리와 함경남도를 한달음에 찾으시여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시고 재해성복우와 큰물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며 집과 가산을 잃고 립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어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쪽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리고도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피해지역으로 파견하여 주시였다.

태풍9호의 영향으로 함경남북도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시고는 련차강행군을 하시여 함경남도현지에 도착하신

길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오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까지 친히 쓰신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일마전에는 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여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복구투쟁과 관련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하달하도록 하시어 인민군대를 새로운 피해복구전역으로 급파하시였다.

피해지역 주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지금은 피해복구투쟁가 벌어지는 친구가 바로 우리 당이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이라고 하시면서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온갖 대책을 다 취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러 고마움의 인사를 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새 살림집에 일사한 금천군 강북리주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 올리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매일이다싶이 TV에서 큰물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아 불행에 울면서도 집을 지어주시는 고사하고 격정마저 해줄 당도 없고 정권도 없는 다른 나라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단을 당한 인민들을 돌보는 일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영원한 농장원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브라질신문 《아우아 베르데》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의 주권을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버이로, 스승으로 따르고있다고 하였다.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어난 고민과 고통을 더없는 락으로, 무상의 영광으로 여기시며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펼쳐시는 결출한 위인을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이 땅에서 자연재해는 있을수 있어도 인민의 불행과 절망이란 있을수 없다.

창건의 첫기슭에서부터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부름과 더불어 아로새겨져온 공화국의 력사는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를 령도자로 높이 모셨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와 영광의 력사, 사랑과 보답의 력사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사랑의 금방석

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으니 인민의 기쁨은 나날이 더욱 커가게 될것이다.

두넓은 벌판 한켠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새 집들을 보니 금방석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다른 누가 아닌 근로하는 인민을 앉혀주시었던 수많은 행복의 금방석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저 황홀한 살림집들 역시 령도자가 인민을 위해 마련해준 사랑의 금방석들이다.

두해전 8월 어느날이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였다.

궤도전차의 시운전에 이어 무궤도전차의 파시에 자리를 잡으신 그이께서는 무궤도전차의 질

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시며 제 손으로 훌륭한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 출퇴근하는 수도시민들을 금방석에 앉히고 사회주의웃음소리를 싣고 달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가고 하시였다.

삼복의 무더위에 옷깃을 땀으로 적시시며 새형의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고 몸소 시운전차에 오르시여 그 성능까지 헤아리시는 그이의 열사복무의 길이 있어 이 땅에는 인민을 위한 수많은 금방석들이 마련되게 되었다.

마식령스키장, 룡리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이 금방석들에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천만고생이 어려웠다.

한글이 또 한글이 가파로운 산길을 치달아오르던 야전차, 인민들에게 한시바삐 세상에 부림없는 생활을 안겨주시려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강의한 의지력으로 돌파하신 마식령은 못 잊을 그 사연을 길이 전하며 문명의 산악으로 높이 솟아있다.

대줄기같이 퍼붓는 비살에 옷자락을 흠뻑 적시시며 끼끼이 걸으신 진창길들이 있어 인민을 위한 병원들이 솟아났고 환노를 맞으시며 오래도록 걸으시던 건설

장의 험한 길들이 있어 삼지연의 천지개벽이 태동했으며 설계가들과 시공자들의 안목을 넓혀주시려 거들 찾으신 건설장의 밤길, 새벽길들이 있어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선경거리들이 하늘높이 일떠섰다.

그 길은 땅우에만 새겨진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의 웃음꽃이 피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여주시려 경에하는 원수님 오르신것인 하늘길들, 엄혹한 자연재해로 하여 불행에 잠겼던 인민에게 더 빨리 행복을 주시려는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조국땅 한끝에로 이어가셨던 바다길, 하늘길은 위대한 헌신의 자욱자욱을 눈물겹게 새겨준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천만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분이시기에 대청리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최근에 련이어 들이 닦친 엄청난 장마철복우와 태풍피해로 인해 물러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어난 고민을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것이라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을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열사복무의 길우에서 이 땅우에는 머지않아 큰물피해촌 마을들이 련속 솟아나 행복의 웃음이 강산에 넘쳐나게 될것이다.

정순진

얼마전 《로동신문》에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주민들이 삼가 올린 편지가 실렸다.

그들은 편지에서 예로부터 재난만을 가져다주던 레성강하류의 복옥에 자리잡았다고 하여 강북리라 불리운 마을이 이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강북리가 되었다고 아뢰였다.

강북리가 강북리로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군인들의 로력적수고에 의하여 이곳에서는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이 훌륭히 일떠섰다.

여기 토베기들조차 그전날의 자기 집터를 찾을때야 할수가 없게 천지개벽이 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밤이 지새도록 출판, 노래판에 웃음판을 펼쳤다는 강북리사람들이다.

바로 그들이 경에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마음과 그리움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린것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을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신다.

그이께서 펼쳐시는 정치도 내놓으시는 로선과 정책도 다 인민을 위한것이며 하시는 말씀

에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진정이 어려웠다.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수님의 은덕으로 복이 강물을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우리 당이 용당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다.

—기쁨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피해복구한 강북리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 거머무셨으셨으며 손수 가마뚜껑도 열어보시고 천정의 높이까지 가늠해보시면서 천여버리의 심정으로 일사할 주민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을을 떠나실 때에는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하시였다.

강북리인민들의 진정성이 담긴 편지를 통해서도 조선의 국력중흥의 국력인 혼연일체의 힘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하나의 편지를 통해서도

만세 소리와 높이를 들려감다

인민들의 마음속생각을 헤아리시며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리고 현지지도에서 생산자, 봉사자들을 만나시었을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느냐,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

그이의 말씀에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집을 한채 지어도 그리고 봉사시설 하나를 운영하여도 인민의 요구와 리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사랑이 담겨져있다.

얼마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

었다.

강북리에 자연재해의 흔적을 깨끗이 가시고 건설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과 농장원들이 좋아 하는가고 물으시고나서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하시며 우리 당의 속원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인들에게 감사사를 준다고 하시었다.

국사의 첫자리에 인민을 세우시는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목소리, 인민의 마음을 담아 로선들을 내놓으시고 정책을 펴신다.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은 인민의 목소

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인민의 사와 지향, 요구를 헤아리시여 정사를 펴나가는 숭고한 인민관이 담겨져있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대의 피해상황을 현지에서 알아보시고 복구대책을 세워 주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살림집형성안을 이북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들도록 하시었다.

살림집형성을 농장원들이 좋아하는대로 해주자고 하시며 살림집설계에 대한 심사를 일군들이 하지 말고 농장원들이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가르침에 따라 농장원들이 바라는 살림집이 설계되고 시공되게 되었다.

사실 재해지역에서 피해흔적을 가지고 원상복구만 하

자고 해도 많은 자재와 로력이 든다.

하지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과 만족을 모르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대청리를 비롯한 재해지역들마다에서 피해흔적과 옛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린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 농민들의 넉넉이 반영된 훌륭한 새 집들이 건설되고있는 것이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으로, 진정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마음속생각을 헤아리시고 행동만을 안겨주시는 숭고한 인덕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어러온다.

본사기자 리 설

태풍, 폭우, 큰물을 동반하는 재해성기상기후는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와 파괴를 동반한다.

올여름 장마계절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는 자연의 광란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손실을 입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8, 9월 련이어 들이닥치는 태풍에 대비하여 국가적인 위기대응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태풍위협으로부터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며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이의 마음속에 쌓인 걱정은 산같으시었다.

8월 초 황해북도 대청리대에 큰물이 났을 때였다.

피해정황을 보고받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이튿날 새벽 해당 지역의 책

임을군을 전화로 찾으시여 자신께서 인차 피해지역에 나가보겠다고 하시었다.

대리용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있는지 걱정된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그들을 안착시키야 한다고, 살림집도 새로 지어주고 피해복구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 주겠으니 대청리주민들이 신

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터놓으시었다.

하늘처럼 신성시하고 떠받드는 인민,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시는 인민들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당하는 고통을 헤아리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걱정은 끝이 없으시었다.

재차 들이닥친 태풍으로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이

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10월의 명절을 환희에 넘쳐 되도록 하시려는 응심깊고 사려깊은 사랑과 정이 친밀서한의 자자구구에 담겨져있다.

산악도 뛰출고 바다도 메울수 있는 강위력한 핵심력량으로 굳게 믿으시는 평양의 당원들을 피해지역으로 부르시면서 그이께서는 걱정이 여간 크지 않으시었다.

제일 큰 걱정은 그들의 건강이었다.

재앙이 휩쓴 협지에서 가을바람을 맞으며 복구건설을 하여야 하는 그들의 건강이 걱정되시어 그이께서는 건설력량을 책임지고 일군들이 건설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돌봐주어 모두 건강한 몸으로 복구건설을 계속하고 돌아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신신당부 하시었다.

민절떠나는 자식을 동구밖까지 나가 바래주며 부디 몸성히 돌아오기를 바라는것이 친부모의 심정이다.

허나 친부모의 사랑과 정보다 더 뜨겁고 진실한것이 바로 경에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정과 사랑이다.

언제나 인민에 대한 걱정이 잠 못 이루시고 한시도 마음편한적 없는 친어머님이시여 인민을 위하여 구상하시는 일은 끝이 없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이란 모르는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오명성

지금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국가의 전력을 투하해야 할 최전선으로 되고 피해복구지역 어디서나 건설자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련일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과 어깨걸고 한전호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함경남도의 인민들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블로크벽기를 끝낸데 이어 기초구조 및 기초공구리크기기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고 살림집건설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전력지구 피해복구전투장에 달려나간 8.28청년돌격대 제1리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청춘의 용맹을 떨치며 지난 9월부터 16일사이에만도 2 400여㎡의 막돌체취와 670 여㎡의 버럭저리,

300여㎡의 혼석운반과 140㎡의 석축을 진행하여 수십리, 구간과 파괴된 도로를 복구하고 여러개의 립시다리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강원도의 피해지역 살림집 건설장에서도 피해복구성

과가 확대되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 일심단결을 다지는 혁명적명절로 빛내이기 위하여 펼쳐나선 도안의 인민들, 돌격대원들과 인민군인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도에서는 살림집지붕공사가 련이어 계속되고 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자재보장단위들에서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생산

전투들이 벌어지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천내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각지 세멘트생산단위들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도 금천군 강북리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전변되어 온 나라를 총경계 하였다.

인민의 진정한 명절인 조선로동당창건 75돐명절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더 좋은 새 집, 새 생활환경을 마련해주려는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복구전투에 의해 피해복구사업들은 빠른 기간내에 훌륭히 계속되고 10월의 하늘가에 로동당 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혁

침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이렇게 그이께서 마음속으로 제일 걱정하신것은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이었다.

피해현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주민들을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데 대하여 아시고 정말 다행이라고 다스나마 걱정이 풀리신듯 말씀하시었다.

수재민들에 대한 걱정을 누를길 없으신 그이께서는 공개서한에서 10월 10일이 눈앞에 막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란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다고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으시었다.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피해지역 인민들도 재난의 흔적

을 보았을 때에도 마참가지였다.

피해지역 인민들을 걱정하신 그이께서는 현지에서 가시여 복구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소집하시고 대책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그리시고는 자신께서 한자 한자 쓰신 공개서한을 평양의 전체 로동당원들에게 보내주시고 최경에수도당원사단들을 무어 피해지역에 급파하도록 하시었다.

수재민들에 대한 걱정을 누를길 없으신 그이께서는 공개서한에서 10월 10일이 눈앞에 막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란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다고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터놓으시었다.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피해지역 인민들도 재난의 흔적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산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한다

그의 심정을 절절히 괴력하시었다.

령도자의 이 크나큰 믿음과 극진한 인민사랑을 괴롭히는 심장에 받아안고 용약 펼쳐나선 최경에수도당원사단들이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 서슴없이 내내 결사의 각오를 안고 피해복구전투에 달려나가 영웅적인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것이다.

최경에수도당원사단, 그 이름이 빛발치는 곳에서 조선로동당의 위력이 펼쳐지고 혼연일체의 힘이 최고의 경지에서 과시되며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흠모심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피해지역들에 파견해주신 수도의 당원사단들은 말은 살림집공사과 재물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제 기일내에 끝냄으로써 다가오는 10월 10일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빛내이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강 류성

온 나라가 들끓는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은 피해지역으로 달리고 있다.

수도에서도 지방에서도, 공장과 가정에서도...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인민을 소중한 품에 안으시고 온 나라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는 경에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사람을 누구나 피해지역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 심정으로 뛰고 또 뛰고 있는것이다.

신문과 TV로 매일같이 보도되는 피해복구성과 소식들을 접하면서 누구나 마음은 그곳으로 달려가 어떻게 하면 나도 피해복구사업에 적으나마 이바지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애국의 열정을 끓이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서들과 일군가족들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

키고 복구건설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정성다해 마련하여 피해지역들에 보내주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높은 신 뜻을 제일 가까이에서 받드는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이 깃든 갖가지 생활용품과 식료품들을 받고보니 비록 수도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자기들은 언제나 당중앙의 뜨락에 산다는것을 더욱더 피부로 절감하게 된다고 격정을 터치었다.

수도의 시민들은 최경에수도당원사단들이 피해복구전투로 떠나간 후 나라의 모든 지역이 항상 자기의 심장인 수도를 각방으로 보위하는것도 국공이지만 어려울 때 수도의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지방인민들을 성심성의로 부축하고 고무격려하는것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풍이라고 하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며 피해복구를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는데 최선을 다하여주시는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하여 9월에 들어와서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파고철들을 수습하여 피해복구용철강재생선으로 들끓는 천리마제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얼마전에는 김성숙평양방직공장에서 피해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복천, 가방천생산을 계속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함흥모방직공장, 신의주방직공장, 9월방직공장과 선교편직공장, 애국편직물공장, 평양양말공장, 해주편직공장, 사리원편직공장, 함흥편직공장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방직공업부문과 편직공업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부모형제를 위하는 심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지금 공화국 전체 인민들은 자연의 광란으로 입은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과 지혜를 합치고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피해지역의 모습은 결코 피해지역으로 달려간 건설자들에게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령도자의 호소를 심장에 새겨안은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떠받들려 이렇듯 위대한 전변을 안아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최고한 자연의 광란이 불어오는 피해를 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되고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피해복구전투가 벌어지는 지역들마다에서 인민군대에 대한 주민들의 감탄의 목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오고있다.

《역시 우리 군대가 다르다》

《나라도 잘 지키지만 건설에서도 그 일출씨는 누구도 따를수 없소.》

《원수님 키워주신 인민군대...》

지금 도처의 피해복구전투장에서 제일 앞장서 일자리를 목숨 내는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헌신으로 달려나온 군인들이다.

번개같이 빠른 일출씨, 살림집축조면 축조, 미장이면 미장,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을 막힘없이 미끈하게 척척 해제끼는 놀라운 건설승씨. 이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복구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있으며 해당 지역들의 면모는 빠르게 변모되어가고있다.

지금 피해복구현장 여기저기에서 군인들은 하루에 한가지씩이라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자며 인민을 위해 할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사색하고 실천에 옮겨가고있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피해복구사업을 진행하는 힘되고 피곤한 속에서도 잠시간을 내어 밤사이엔 든든한 물다

《우리 군대가 제일이다》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김덕지구 피해복구전투장에 달려나간 인민군인들도 도로와 다리복구 등 많은 공사를 해제기였다.

최근 자연의 대재앙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의 소재지마을도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긴 인민군인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투쟁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인민군인들은 피해복구현장에서 단지 복구나 창조만 하는것이 아니다. 인민의 군대로서 인민을 위하는 아름다운 미풍들도 적극 발휘해가고있다.

지금 피해복구현장 여기저기에서 군인들은 하루에 한가지씩이라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자며 인민을 위해 할수 있는 자그마한 일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사색하고 실천에 옮겨가고있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피해복구사업을 진행하는 힘되고 피곤한 속에서도 잠시간을 내어 밤사이엔 든든한 물다

리를 만들어놓은 이야기, 해산하러 친정집에 왔다가 돌아가기 전에 한 산모를 위해 진정을 바친 이야기, 그토록 바쁜 속에서도 분교에 새 교구비품도 갖추어주고 성의를 다해 마련한 지원물자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겨준 소행,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마음도 알아달라며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안고 찾아온 인민들에게 군대는 인민의 아들들이며 피해지역에서 인민군대가 리용할수 있는것은 오직 물과 공기뿐이라고, 인민들의 것을 절대로 받을수 없다며 《특별초소》까지 내은 군인

건설자들에 대한 이야기 등은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인민사랑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에하는 원수님을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인민군대에서만이 발휘될수 있는 영웅적인 투쟁모습이다.

하기에 얼마전에도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최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전개된 재해복구전선마다에 주력하고 나선 우리 군인들이 발휘하고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지니고있는 진할 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앞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의 리의를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면서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창조의 구호를 바쳐가고있는 인민군인들.

머지않아 전화위부의 창조물로 솟아오를 인민의 리상향을 그려보며 그들은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한 일혁



청춘과 원에 사과 향기 넘친다

=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을 찾아서 =



인민사랑이 안아온 흐뭇한 과일 풍경

나라의 과일생산기지인 이음높은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에 흐뭇한 과일작황이 펼쳐졌다.

얼마전 우리는 규모에 있어서나 과일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수준에 있어서 굴지의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된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을 찾았다.

갈간데 없이 펼쳐진 과수밭에서는 가을바람에 흔들려마다 주렁주렁 사과알들이 싱그러움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불수록 흐뭇한 사과바다는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알알이 붉게 익었소라는 노래가 절로 흘러나오게 하였다.

바구니마다에 알알이 여문 사과를 정성다해 한알 한알 따고있는 녀성근로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우리와 만난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레년에 없이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었지만 사과작황이 기대했던것보다 훨씬 좋으며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올해에 사과가 정말 많아요. 따도 따도 끝이 없습니다.》 《지난해보다 사과알도

크고 비할바없이 많이 달렸는데 한그루에 200알정도는 달린것 같습니다.》

동행하던 일꾼은 가지마다 알알이 여문 사과들을 볼 때마다 여러차례 농장을 찾아오시어 인민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먹이시려 마음쓰신 전세위원들의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진다고 하면서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더듬었다.

주제97(2008)년 11월 여려 품종의 좋은 사과나무를 재배하여 맛좋은 사과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이곳을 과수원으로 전환시킬데 대한 발기를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데 이어 과일보관고와 과일가공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문제, 과수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제를 도입할데 대한 문제 등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한다.

그 이듬해 새로 건설된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을 찾으면서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여러 품종의 사과들을 보시고 인민들에게 맛좋은 사과를 먹일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어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인민사랑의 귀중한 유산인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이 큰 은을 내도록 걸음걸음 손잡이 이끌어주시였다.

《과일대풍을 안아온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어 사랑어린 평가도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은 해마다 과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습시다.》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풍요한 사과작황을 마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포전에 모시고 기쁨을 드릴 볼타는 소원을 안고 과일나무 한그루한그루를 자기 살밭이처럼 여기고 애지중지가구었다고 한다.

그러하여 해마다 과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과일대풍을 마련할수 있었단것이다.

농장일꾼의 이야기들 들으며 과수밭을 돌아보느라 인민들에게 공급할 탐스러운 사과를 가득 실은 과일수송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기세충천해 떠나고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느라니 인민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청춘과원의 과일향기는 영원히 넘쳐흐를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후뭇했다.

본사기자 김철

과학과수의 기치를 들고

- 과학성 대동강과 수종합농장 기사장과 나눈 대담 -

기자: 올해에 대동강과 수종합농장에서 좋은 과일작황을 마련하였는데 그 비결에 대해 알고싶다.

과학성: 그것은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수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해 나간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농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어 과일생산량을 과수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것만큼 과수부문들에서는 과학과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과수에서도 기본은 종자라고 하시면서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은 과일종자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우량품종의 과일묘목생산을 정상화하며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과일나무배치를 정확히 할뿐 아니라 시기별, 공정별에 따르는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우리 농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정모양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과일생산

을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나날 전자지도에 의한 과수영농지휘체계를 새롭게 준비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농공정별 과일나무비배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갔다.

또한 수백정보의 면적에서 과일나무그루바꿈을 진행하고 풀깎기, 비료주기, 약뿌리기 등 과수작업의 기계화비율을 훨씬 높여나갔다.

품종, 년생별특성과 꽃은 상태에 맞게 가지되어주기, 갱신가지치움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제때에 하여 그 무당 많은 꽃눈이 움트게 하였으며 관수체계를 잘 정비하여 과일나무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었다.

이와 함께 생물활성강화제로 여러차례 엷트비료주기를 진행하여 과일나무의 병변일성을 높이고 충실한 열매들이 달리도록 하였다.

자체의 농약생산기지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효능높은 생물농약들을 과일나무들에 분무해주어 병해충피해를 극력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과일생산

을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나날 전자지도에 의한 과수영농지휘체계를 새롭게 준비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농공정별 과일나무비배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갔다.

또한 수백정보의 면적에서 과일나무그루바꿈을 진행하고 풀깎기, 비료주기, 약뿌리기 등 과수작업의 기계화비율을 훨씬 높여나갔다.

품종, 년생별특성과 꽃은 상태에 맞게 가지되어주기, 갱신가지치움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제때에 하여 그 무당 많은 꽃눈이 움트게 하였으며 관수체계를 잘 정비하여 과일나무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었다.

이와 함께 생물활성강화제로 여러차례 엷트비료주기를 진행하여 과일나무의 병변일성을 높이고 충실한 열매들이 달리도록 하였다.

자체의 농약생산기지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효능높은 생물농약들을 과일나무들에 분무해주어 병해충피해를 극력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과일생산

을 과학화, 집약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 나날 전자지도에 의한 과수영농지휘체계를 새롭게 준비하고 그에 기초하여 영농공정별 과일나무비배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여나갔다.

또한 수백정보의 면적에서 과일나무그루바꿈을 진행하고 풀깎기, 비료주기, 약뿌리기 등 과수작업의 기계화비율을 훨씬 높여나갔다.

품종, 년생별특성과 꽃은 상태에 맞게 가지되어주기, 갱신가지치움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제때에 하여 그 무당 많은 꽃눈이 움트게 하였으며 관수체계를 잘 정비하여 과일나무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었다.

이와 함께 생물활성강화제로 여러차례 엷트비료주기를 진행하여 과일나무의 병변일성을 높이고 충실한 열매들이 달리도록 하였다.

자체의 농약생산기지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거기서 생산되는 효능높은 생물농약들을 과일나무들에 분무해주어 병해충피해를 극력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과일생산



과일을 많이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이 과정에 얻은 좋은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올해에 많은 과일을 생산하였다고 하지만 과일수확량을 더욱 높이고 과일의 맛과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자면 과학과수의 기

중요하다고 본다.

과학성: 옳은 말이다. 과일을 더 많이, 더 맛있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 대동강과 수종합농장 지주에는 대동강돼지공장 과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있어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생산체계가 확립되어있다.

우리는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수천의 유기질복합비료를 정모양 20t씩 시비하였고 흙보산비료, 생물활성비비 등 지력을 높일수 있는 효능높은 비료들도 여러차례 과수밭들에 시비하여 과일나무들의 영양상태를 높여나갔다.

과수업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맛을

각한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한몸이 그대로 밀려들이고 뿌리가 되어 농장을 세계굴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켜나갔다.

대동강과 수종합농장 직업반장 리명호

시대의 앞장에서 변함없이 달리는 자랑많은 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으로 받들어가게 공장으로 빛내이려는 뜨거운 마음이다.

자나깨나 이런 순결한 마음을 안고 사는 차진순지배인이기에 그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말없는 선봉으로 되어 할수 없다고 뒤전에 밀어놓았던 일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콕콕찍히 자리를 내며 현실로 전환되고 있었다.

차진순지배인은 말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다스려 기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만 굳건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굳은 신념을 안고 오늘도 차진순지배인은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더 높이 비약하면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홍흥식



927닭공장에는 자랑도 많다. 생산에 필요한 전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한 자랑, 첨가제와 대용먹이로 고기와 알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자랑, 종업원들을 위한 자랑스러운 후방토대를 갖춘 자랑...

이 모든것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이룩

난관을 다스려

927닭공장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난 시기에 불수 없었던 새풍을 펼쳐놓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은 우리가 차진순지배인을 만나러 사무실에 들리니 비어있었다.

한동안 망설이고있는데 마침 그날을 지나던 공장의 최순희부기사가 기자임을 알아보고 요즘 지배인동지가 새로 꾸리는 자력갱생기지에서 살다싶이 한다고 하면서 그러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와 함께 과일나무숲속에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공장내를 걷느라니 규모있게 배열된 태양발전지판들이 이채롭게 안겨왔다.

그것을 가리키며 최순희부기사는 공장에서 태양빛에 의한 전력생산공정을 자체로 꾸려 많은 전기를 얻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 공장에서 전기사정으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정전될 때마다 디젤유를 리용하는 발전기로 급

복을 창조하다

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결정적인 대책이 못되었다.

어떻게 하면 전기문제를 해결할것인가.

모두가 이 문제를 두고 안타까와하고있을 때 차진순지배인이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자체의 전력생산체제를 갖추것을 결심하였다.

《그때 태양발전전소라고 하면 태양발전지판을 몇개 설치하고 조명이나 컴퓨터전원을 보장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지배인동지는 그렇게 소규모적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생각이나 별볼이 지 국가에 아무런 리득도 줄수 없다고 하면서 수백kW능력의 태양발전전소를 건설할것을 호소하였습시다.》

이렇게 되어 태양발전지판들이 줄비하게 배열된 전기생산구역이 공장의 여러곳에 생겨나게 되었다.

태양발전전체계의 확립은 공장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더해주었다.

차진순지배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우리 지배인동지의 일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최순희부기사는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정상화에서 관건으로 되는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자체의 발전동력을 적극 찾아내어

그것은 메탄가스에 의한 전력생산체제를 구축하는것이였다.

닭공장에서 닭배설물은 사시장철 마를줄 모르는 풍부한 원천으로 되고있지만 그것으로 전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한다.

실례도, 고생도 있었다. 그러나 더 좋은 레일을 위해 간고분투하여 끝끝내 메탄가스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지난 시기 눈발이 쏟아지던 겨울엔 닭배설물이 지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서야 농업생산에 리용된다며 최순희부기사는 신이 나서 말하였다.

공장에는 버려져 리용한 전력생산공정도 꾸려져있는데 이것 역시 전망이 좋다고 한다. 버져도 공장의 운영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서 원천이 풍부하기때문이다.

공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전력생산능력을 1 000kW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결국엔 만한 중소형발전소의 생산량과 맞먹는 전기가 공장안에서 생산되는셈이다.

공장의 자랑은 그뿐이 아니였다.

《우리 지배인동지의 일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최순희부기사는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정상화에서 관건으로 되는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막이문제해결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단백질과 첨가제생산, 대용먹이생산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주시였다.

가금생산이자 단백질이 해결이라고 할만큼 단백질이 보장은 가금공장들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공장에서는 공계목발효기지를 꾸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필요한 공계목들년간 수백t씩 절약하고있었다. 결국 적은 양의 공계목을 가지고 높은 생산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에서 첨가제를 자체로 만들고있는데 생산원가가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 실리있는것은 대용먹이생산이었다.

공장에서는 닭배설물에 의한 대용먹이를 생산하고있는데 돼지의 경우 대용먹이를 80% 첨가하고 오리는 50% 첨가하며 메기는 전부 대용먹이로 기르고있었다.

2015년 8월 레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플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말하면서 우리는 농장에서 생산한 첫물사과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소식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뜨겨워진다.

2015년 8월 레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플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말하면서 우리는 농장에서 생산한 첫물사과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소식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뜨겨워진다.

2015년 8월 레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플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말하면서 우리는 농장에서 생산한 첫물사과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소식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뜨겨워진다.

2015년 8월 레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플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말하면서 우리는 농장에서 생산한 첫물사과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소식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뜨겨워진다.

2015년 8월 레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플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말하면서 우리는 농장에서 생산한 첫물사과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소식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뜨겨워진다.

2015년 8월 레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알알이 플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말하면서 우리는 농장에서 생산한 첫물사과를 평양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

우리는 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이룩한 소식을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뜨겨워진다.

활하신 미소

어려여온다

어떤 땅이 끼치게 달린 사과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였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 그것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사과를 먹이시려 그처럼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현실로 꽃피게 되었다는 만족이라고 생

각한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한몸이 그대로 밀려들이고 뿌리가 되어 농장을 세계굴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켜나갔다.

자나깨나 이런 순결한 마음을 안고 사는 차진순지배인이기에 그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말없는 선봉으로 되어 할수 없다고 뒤전에 밀어놓았던 일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콕콕찍히 자리를 내며 현실로 전환되고 있었다.

차진순지배인은 말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다스려 기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만 굳건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굳은 신념을 안고 오늘도 차진순지배인은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더 높이 비약하면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홍흥식

시대의 앞장에서 변함없이 달리는 자랑많은 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으로 받들어가게 공장으로 빛내이려는 뜨거운 마음이다.

자나깨나 이런 순결한 마음을 안고 사는 차진순지배인이기에 그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말없는 선봉으로 되어 할수 없다고 뒤전에 밀어놓았던 일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콕콕찍히 자리를 내며 현실로 전환되고 있었다.

차진순지배인은 말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다스려 기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만 굳건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굳은 신념을 안고 오늘도 차진순지배인은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더 높이 비약하면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활하신 미소

어려여온다

어떤 땅이 끼치게 달린 사과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고 또 보시였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쁨, 그것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사과를 먹이시려 그처럼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현실로 꽃피게 되었다는 만족이라고 생

각한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한몸이 그대로 밀려들이고 뿌리가 되어 농장을 세계굴지의 청춘과원, 인민의 과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켜나갔다.

자나깨나 이런 순결한 마음을 안고 사는 차진순지배인이기에 그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말없는 선봉으로 되어 할수 없다고 뒤전에 밀어놓았던 일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콕콕찍히 자리를 내며 현실로 전환되고 있었다.

차진순지배인은 말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다스려 기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만 굳건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굳은 신념을 안고 오늘도 차진순지배인은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더 높이 비약하면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홍흥식

시대의 앞장에서 변함없이 달리는 자랑많은 공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실현으로 받들어가게 공장으로 빛내이려는 뜨거운 마음이다.

자나깨나 이런 순결한 마음을 안고 사는 차진순지배인이기에 그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말없는 선봉으로 되어 할수 없다고 뒤전에 밀어놓았던 일들,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콕콕찍히 자리를 내며 현실로 전환되고 있었다.

차진순지배인은 말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다스려 기적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자력갱생의 정신만 굳건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굳은 신념을 안고 오늘도 차진순지배인은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더 높이 비약하면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차진순지배인 (가운데)

모란봉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3)

가을마감 쓰치는 청류정에 올라

철성문을 돌아본 우리는 숲속에 나있는 소로길을 따라 청류정으로 향하였다. 평양의 명승인 모란봉의 절정은 꽃피는 봄날이라고들 하지만 모란봉의 가을풍경 역시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었다.

소나무, 잣나무 등 바늘 잎나무와 단풍나무 등 넓은 잎나무들이 짝 들어찬 숲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내뿜고 서늘한 그늘을 지어주고 있었다. 숲의 공기마다에 꾸러진 도종휴식터들에서는 선들

선들한 가을마감 붙어오는 모란봉에 올라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잠시 의자에 앉아 모란봉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리얼심연구사에게서 청류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동강의 구슬같은 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우에 자리잡은 루정이라고 하여 이름지어진 청류정이다. 이 루정은 옛날에는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동쪽장대터(군사지휘처)였다고 한다.

그후에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서문인 정해문을 없애고 그 문루를 옮겨지으면서 루정으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리얼심연구사는 모란봉에는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들이 많다고, 이제 가보면 알



청류정

겠지만 개개의 명소들은 다 자기대로의 멋이 있다고 말하였다. 다시 걸음을 옮기자 얼마 안되어 청류정의 루정이 눈에 안겨왔다. 내부가 넓고 환한감을 안겨주는것이 먼저 본 올밀대의 루정이나 철성문의 문루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청류정에는 묘시주가 있는데 이 건물은 조선건국왕조시기에 평양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1716년에 고쳐 세운것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깎아지른듯 한 청류벽우에 학이 날아갈듯 솟아있는 청류정에 오르니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바로 그래서 청류정이 모란봉에서는 전망이 그중 좋은 곳의 하나로 소문난것이라. 예로부터 봄을 맞는 올밀대의 아름다움이 하도 유명해 《올밀상춘》이라 불려왔다지만 여기 청류정에 이르러 나날이 변모하는 평양의 경치를 한껏 느껴보는 심정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우리의 발걸음은 그곳에서 오래도록 머물러질 줄 알았다.

글 본사기자 김혜성 사진 본사기자 동장현



청류정에서 바라본 동평양지구의 모습

가을철의 제일 큰 민속명절은 추석(한가위)이다. 추석은 우리 선조들이 조상전례로 쇠어온 큰 명절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명절이기도 하다. 옛 기록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세나라시기부터 8월보름날을 《가위날》, 《한가위》 또는 《가배》라고 하면서 큰 명절로 쇠어왔다.

추석(한가위)이다. 추석에 녀성들이 즐긴 민속놀이는 그네뛰기이다. 그네뛰기는 한사람이 뛰는 형식(외그네)과 두사람이 한 그네에서 마주 뛰는 형식(쌍그네)이 있었으며 보통 승부

추석민족음식. 송편과 노치는 우리 선조들이 추석날 많이 만들어먹은 음식이다. 송편은 만들기가 쉽고 팔, 당풍, 고구마, 밤 등 다양한 소를 넣음으로써 맛을 여러가지로 낼수 있으며 백반죽에도 썩, 취 등이나 색소를 넣어 색깔과 향취, 형태를 다채롭게 할수 있다.

노치는 평양지방에서 많이 만들어먹었는데 주로 명절음식상에 놓곤 하는 고유한 떡이다. 올해의 추석은 10월 1일이다. 본사기자

민속명절 - 추석

추석날 민속놀이. 우리 선조들은 추석때 민족경기의 하나인 씨름을 하면서 즐겼다. 씨름은 완강한 인내력과 투지 그리고 장수와 같은 힘을 키우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민족경기의 하나이다.

추석날의 말구경은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이채로운 명절의례였다. 하루해가 지면 집앞으로 나와 한테치고 제일 유난히 밝은 한가위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다음해에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했고 노래도 불렀다.

추석날 민속놀이. 우리 선조들은 추석때 민족경기의 하나인 씨름을 하면서 즐겼다. 씨름은 완강한 인내력과 투지 그리고 장수와 같은 힘을 키우는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민족경기의 하나이다.

사화

천인독 (4)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웅기는 치밀어오르는 마음을 간신히 다잡고 백부자네 집을 나섰다. 생각 같아서는 작인들을 등척하고가는 백부자 너희들 에겐 물귀신이 피해가느냐고 한바탕 들이댔으면 속이 후련하련만 마을을 위한 좋은 일을 하면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예이, 억척보듯같은 놈! 우리끼리 보란듯이 독을 쌓고 물을 다스려서 백부자따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웅기는 불망치를 켜들고 밤에도 개울로 나갔다. 마을사람들이 또 그를 따라나와 밤늦게까지 독을 쌓았다. 불과 열흘 남짓해서 외통길은 전혀 딴 길이 되었다. 개울바닥을 깊이 파서 이백보나 되는 길은 따라가며 한길 높이를 쌓아올리고 두팔간의 개울이 합쳐지는 곳에다가는 길을 보호하는 독을 수습보나 든 듯이 쌓았다. 마치 로성인듯싶은 독에다 참나무말뚝까지 촘촘히 박아 놓으니 백년이고 천년이고 끄떡없을 것 같았다.

모두들 천지개벽이라도 일으켜놓은듯싶은 호탕한 심정이었다. 마을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쌓은 제방벽우에서 흥겨운 춤판을 벌리었다. 봄과도 끝나고 지난 가을에 심은 보리들이 허리를 치며 자라올랐다. 산에 나무잎이 무성해져자 보리장마가 먼저 달려들었다. 허나 보리장마는 서우물 마을사람들이 쌓은 제방벽을 어찌지 못하고 물러가 버렸다. 뒤이어 류두물이 졌다. 억수로 퍼붓는 비에 죽배천은 사뭇치는 물바다를 댈 댔사시었다. 도룡이를 걸친 웅기는 제방 벽우에 버티고서서 절절 불어나는 큰물을 불안스럽게 지켜보았다. 시련엔 흉탕물은 바위돌까지 갈려벌들 와룡와룡 소리 들리며 제방벽으로 넘버 들었다. 단숨에 물에메칠듯 집재갈이 거센 물결이 기술을 부렸지만 제방벽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럼 그랬잖이. 좌상로인이며 마을사람들이 뒤따라나와 제방우에 벌려섰다. 제방벽이 류두물에만 견디면 칠석물에도 견디는것이냐 그러면 물을 다스렸다고 할 수 있을것이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잡도리가 심상치 않아보였다. 맥장구름들이 숨돌릴새없이 밀려들고 대줄기같은 폭우는 하늘땅을 통채로 들부실듯 사정없이 퍼부어졌다. 죽배천의 물줄기가 부딪쳐서 내물이 꺾어나가는 동네 앞의 벼랑바위우에서 굉장한 번개가 번쩍하며 땅을 쳤다. 이어 짱-파르릉! 하는 퇴성벽력이 천지를 진감했다. 길쭉하면 벼랑에 얻어맞는대서 벼랑바위라고도 불리우는 그 바위가 금시 박살날듯 우르릉-우르릉-떨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겁에 질려있었다. 또다시 집재같은 물결이 제방벽을 치받았다. 그래서 제방벽은 한모습이였다.

가을철의 건강관리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감기가 유행되는 계절에는 자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비루스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정상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체온이 1℃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한다. 가을과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많아지는것은 기온과 체온의 변화에 많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영양분섭취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것은 음식물섭취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편식하는 습관을 버리고 남새와 과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입안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 입안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면 치주염이 생기고 당뇨병과 심장병까지 발생할수 있다. 이발을 깨끗하게 닦고 자주 입가심을 하는 등 입안위생을 잘 지키는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튼튼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으로 된다. 본사기자



라붙었다. 뒤이어 쳐들어온 거센 물결이 제방벽을 훌쩍 삼켜버렸다. 아, 사람의 힘이란게 고작 이런 정도였는가. 웅기는 너무 분해 땅을

금시라도 향기 품길듯



요즘 보통강구역에 위치한 화초전시장은 찾아오는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아담하면서 화초전시장에 들어서니 각종 말린꽃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있었다. 각각한 종류와 크기, 모양도 그렇지만 하나하나의 말린꽃제품들이 정교한 공예품을 방불케 했다. 액물, 꽃병, 원형유리볼, 탑장식 등 말린꽃제품들에서는 금시라도 향기가 물씬 풍겨오는것만 같았다. 우리와 만난 림소연봉사원은 이곳 화초전시장에서 장미, 카네이션, 백일홍을 비롯한 100여종에 달하는 말린꽃

제품들을 봉사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말린꽃제품들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말린꽃제품에 대해 열성스럽게 묻기도 하고 봉사원의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이곳 봉사자들의 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었다. 모란봉구역 월향동에서 산다는 신수향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말린꽃제품들을 얼마나 생동하게 형성했는지 꼭 실물을 보는것만 같다. 방금전에 액물에 넣은 장미꽃제품을 샀는데 집식구들도 좋아할것 같다.》 우리의 눈길도 화려한 말린꽃제품들에서 떠날줄 몰랐다. 본사기자 김진혁

평양시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은 각종 주사기들과 집적기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의료기구생산기지이다. 수중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과 아름다운 화초들이 우거진 공원, 아담하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느껴지는 산뜻한 건물들과 번듯하게 포장된 마당과 구내도로, 푸르싱싱한 나무들에서 풍겨오는 청신한 기운... 이것이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안겨오는 대동강주사기공장의 이채로운 모습이다. 대동강주사기공장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사출, 조립, 포장, 제품운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호르몬화, 무균화 되어있다. 공장에서는 자력경영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력 밑에 초초음파세척기, 산

처리기, 고압은수발생기, 주사바늘건조기조종반 등의 제작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각이한 규격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마음 먹은대로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주사바늘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하는 나라들의 주사바늘과 거의 모든 질적지표에서 당당히 어깨를 겨룰수 있다. 최근에는 2요소인입주사기와 그와 결합되는 주사바늘을 개발하여 1회

용주사기의 사명과 용도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주사기의 위생안전성을 더욱 담보하고있다. 지난해 대동강주사기공장을 돌아본 세계보건기구의 대표들은 세계적으로도 이런 공장은 몇개 안된다고, 이처럼 훌륭한 공장을 볼수 있게 하여주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였다. 대동강주사기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각종 주사기들과 더불어 공장에 대한 사람들의 호평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민족시문학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뛰어난 시재 리인로

리인로는 고려 중기의 이름난 시인이다. 그는 《해학칠현》의 년장자겸 충실인물로서 리규보, 김국기와도 련계를 맺고있었으며 그들의 창작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문학적으로 고려 중기의 상대적인 양양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하였다. 그의 문학활동과 공적에 대하여 경기체가요인 《한림별곡》에서는 그를 시의 거

장으로 평가하였다. 15세기에 서거정은 리인로를 림춘, 리규보, 김국기, 진화 등과 함께 고려 중기의 뛰어난 시재(시창작의 재사)라고 찬양하였다. 그의 저서로 《은대집》(20권), 《후집》(4권), 《쌍명대집》(3권), 《파한집》(3권)이 있으며 시 《세상살이 어려워라》, 《지리산에 놀며》 등이 전해지고있다. 《세상살이 어려워라》(《속행로난》) 산에 올라 범의 수염 건드리지 말고 바다에서 룡의 구슬 탐내지 말라 지척이 천리처럼 멀 때도 있고 고산준령이 평지같은 때도 있다 나라끼리 서로 싸워 세상은 소란한데

갈래길 너무 많아 뜻있는 사람 눈물지노라 그대는 모르는가 옛날의 선비 높은 벼슬을 버리고 강아에서 마음대로 낚시질만 한것을 ... 작품은 병들고 썩어빠진 당대의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보려는 지향을 표현하고있다. 《세상살이 어려워라》는 하나의 주제사상적내용으로 일관된 3개의 시를 련결시킨 련시형식의 작품이다. 작품은 사상적지향에서 문인량반들의 의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당대의 현실생활에 대한 강한 비판적기백과 량반들의 적색채를 구현하고있는 점에서 문학사적의의를 가진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가을물은 소밭자극에 고인물도 먹는다. 가을물이 맑고 깨끗함을 이르면 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뵈다. 가을에는 일거리가 많아서 누구나 몹시 바빠 돌아간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서리가 내려야 국회의 절개를 안다. 국화는 서리가 내린 다음에도 꽃을 피운다는데로부터 절개의 굳센은 여느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에 알수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화실히 우린 너무 조급했어. 큰물만 지면 죽배천물이 황포해지는걸 알면서도 빨리 독을 쌓자는 생각만 하더니 흉곡을 쌓았거던. 그리고보면 내가 좌상구실을 못했네. 물안에서야 흙이 무슨 맥을 주겠나. 바위돌하고 해봐야 물귀신을 이길수 있지.》

안해가 평소에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비가 오는데 바위에 나가 빨래들을 쫓겨오세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그러다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 《아니, 쇠덩이같은 몸이 병은 무슨 병?》 《쇠덩이가 비에 맞으면 녹이 쓴다는걸 몰라?》

쇠덩이

안해가 평소에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비가 오는데 바위에 나가 빨래들을 쫓겨오세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그러다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 《아니, 쇠덩이같은 몸이 병은 무슨 병?》 《쇠덩이가 비에 맞으면 녹이 쓴다는걸 몰라?》

안해가 평소에 일하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비가 오는데 바위에 나가 빨래들을 쫓겨오세요.》 그러자 남편이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그러다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 《아니, 쇠덩이같은 몸이 병은 무슨 병?》 《쇠덩이가 비에 맞으면 녹이 쓴다는걸 몰라?》